



US-CHINA WATCHING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US-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 中美政策研究所

2023. 08. 28 <제45호>

윤석열-시진핑 시기 한중 관계 현황과 전망

김흥규(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정책 제언

한중 간 갈등과 충돌의 강화는 Lose-Lose 게임임. 갈등의 확대보다는 관리에 집중하여야 함

- 추가적인 강대강 대결을 자제하고 상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내년 한국 총선을 계기로 한국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할 것임.
- 윤석열 정부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갈등과 충돌의 강화는 큰 부담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 화할 것으로 전망함.

점차 강경화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대외정책 분위기 속에서 강경론에 편승하거나 정치화된 이데올로기 외교에 경도되어서는 한국의 국가 이익을 보전하기 어려움

- 각국의 온건론자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유연성을 담은 1.5 내지 2.0 트랙의 전략대화 채널 구성하여 지속적인 물밑 대화를 추진.
-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는 계기를 잘 활용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기에 중국 리창 총리를 우선 방한하게 하여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 중국에게 다음 세 가지 사안을 강조하여야 함

- 한국의 정체성이 더 이상 청-조선 시기의 위계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2차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번영하면서, 국가 간 상호 평등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
- 한국과 같은 주변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압박외교로 전환한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인정받기는 곤란.
- 주변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의 기반을 닦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미래의 지역안정과 평화에 대단히 중요.

윤석열 정부가 가치를 중시하고 북한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함

-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이며, 기후변화, 의료, 환경, 에너지,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적극적이며, 기후변화, 의료, 환경, 에너지,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1. 시진핑 3기 대외정책의 변화

2022년 10월 열린 20차 당대회와 2023년 3월 양회로 시진핑 지도부 3연임이 확정된 이후 가장 중요한 대외전략 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중심의 국제질서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추진할 것임을 공식화한 것임

- 최근 들어 글로벌 발전 구상(GDI), 글로벌 안보 구상(GSI), 글로벌 문명 구상(GCI)을 연이어 발표하고, 기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포위하기 위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통해 진영 간 상호 적대적 대결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중국 역시 피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

- 중국은 한미일 접근과 협력 강화를 중국을 겨냥한 나토체제의 동북아 확장으로 우려하고 민감하게 반응.

세계는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륙연대 vs. 해양세력연대의 대립, 중국의 천하 3분론의 비전이 충돌하고 있음

중국은 자국의 안보환경을 지정학-지경학-국제질서체계의 3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불리한 지정학적 요인은 최소화, 지경학적인 주도권은 최대한 확대, 국제질서체계에서는 변혁을 추구하려는 함

-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지정학적 충돌은 가급적 자제하는 대신, 공급망을 중국에 우호적으로 재편성하고, 미국 중심의 금융체제를 약화시키면서, 다자주의를 적극 활용해 중국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려 노력중.

중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브릭스(BRICS), SCO(상하이협력기구),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과 같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 정치-경제-안보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시작

- 2022년 캠브리지 대학의 한 보고서(The World divided)에 따르면 중-러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수가 미-서방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수를 추월.
- 현재,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 및 BRICS+Global South 연대의 경쟁과 대립 이 가열되고 있음. 기존 세계화를 재편성하고, 블록화 형태의 공급망과 다자주의를 결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음.

중국은 국가 정체성의 변화도 수반 중임. 기존에 Global South의 일원이라는 자기 제한적인 정체성을 벗어나, Global South와 Global North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 자처

- 중국은 이미 발표한 GSI가 제시한 공동안보 기조 하에 사우디-이란 중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 추진. 사우디가 주재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형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중재회의에도 참석. ※후후 남북한 문제의 중재도 주도하려 할 개연성 다대.
- 중-아프리카, 중-아랍, 중-중앙아시아, 중-라틴아메리카, 중-태평양 도서국가 관계 등을 강화하고 Global South와의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면서 전 세계적 영향력 강화 추진.
- Global South 협력 4대 원칙 발표(2023.7.25., 왕이 중앙외판 주임).
 - »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와 지속가능한 안보 확보
 - »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 발전을 촉진
 - » 포용적 개방 및 공동으로 진보 촉진
 - » 일치단결하여 경제협력을 촉진

2. 시진핑 3기 대한반도 정책

한국은 인도와 더불어 시진핑 1기 이래 주변국 외교의 주요 대상이었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주요 인사인 왕치산, 리잔슈, 양제츠, 왕이 등이 방한하여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냄

- 시 주석은 2022년 1.5트랙의 한중 대화 추진 제의.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과, 한국 정부의 급속한 친미화 추이에 대해, 중국은 점차 기대와 관망의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 외교부장 차원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경고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제기.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對한국 적대감과 민감도는 크게 상승하여, Wait and See 정책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가는 단계에 있음

- 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보복’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며, 강대국으로서 단기적인 이해를 넘어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하려 할 것임.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됨.
- 시진핑 주석은 이미 반복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책을 천명한 바 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적대감을 비외교적인 언사를 활용하여 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과 한중관계 관리

- 윤 정부의 이념과 가치 중심의 외교 강조는 향후에도 중국과 대립을 더 강화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이나 중국 모두 이데올로기를 외교 전면에 내세우는 최근 현상은 국내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양국 모두 실제 대외정책에 대한 적용은 pragmatism에 입각해 유연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함.
- 지난 5월 22일 방한한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은 한중 관계 개선이 아닌 추가적 관계 악화 방지와 관리를 위해 한국 방문했다고 전달.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마지노선인 4대 불가 방침 전달:
 - ① 중국 핵심이익 침해시 협력 불가
 - ② 친미·친일 일변도 정책으로 나갈 경우 협력 불가
 - ③ 한중관계 긴장 지속시 고위급 교류 불가
 - ④ 악화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2023년 6월 발생한 싱하이밍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나 친강 전 외교부장의 전랑외교 성향에 기인하기보다는 중국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對한국 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야 함

- 중국의 對한국 정책은 관찰과 관리에서 무시로, 그리고 압박 시나리오를 고려중인 것으로 인식.
- 왕이의 외교부장 재취임으로 싱하이밍이 보다 오래 주한대사로 일할 개연성 높아짐.
- 최근 중국 국내의 경제하강·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미국 국내정치 상황도 중국의 국익에 반하여 더 악화될 개연성도 존재하여 중국은 잠정적으로 대외 정책을 강공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 이는 한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경제·외교적 압박이나, 군사적 강공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함. 단 이를 일각의 주장처럼 “한국 외교의 승리”로 정신 승리해서는 안됨.
- 중국은 현재 한국과의 접촉선을 정리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년 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중은 모두 어려워 보임.
- 한중 강대강의 대립은 부산 박람회 유치를 어렵게 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개연성도 존재함. 북한 카드의 활용, 해양 경계의 자의적 설정, 유무형의 경제적 제재 등 다양한 對한국 압박 수단이 존재.

중국의 對한국 정책은 향후 강대강으로 더 진전될 경우, 중국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억제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압박할 개연성이 존재함. 군사적으로 한국을 포위하고(圍韓), 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을 괴롭히고(困韓),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窮韓)하게 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봄

- 군사적으로 한국을 포위(圍韓): KADIZ 침범, 황해 중간선 무력화, 이어도 공역 실질적 장악, 북한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
- 정치외교적으로 한국을 핍박(困韓): 국제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 강화, 부산 박람회 경쟁국 지원, 북한 추가 제재 불허와 기존 제재 약화, 북중 관계 개선.
-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케 함(窮韓): 반도체 전쟁은 회피, 그러나 중국에 취약한 공급망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이익 손상시키는 조치. 제7광구에 대한 권익 확보.

북한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으로 북중 전략적 협력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보임. 시진핑 1기 시기(2012~2017) 북중 관계는 크게 약화되어 ‘전략적 부담’의 측면이 부각. 2기 시기(2017~2022)부터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견제와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로 인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였고, 3기 들어 북중 관계를 대거 제고하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 확인

3. 잠정적 판단

윤석열 정부 시기 한국 외교안보의 최대 도전은 한중관계에서 올 개연성 다대

윤석열 정부의 친미 노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derisking이 아닌 rerisking의 위험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중국의 對한국 decoupling 정책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

- 한미일 3국 정상회담, ARF, G-20, NATO 정상회담, APEC 등 예정된 행사에서 한-중 간 이해 충돌로 추가적인 관계 악화 가능성 다대.

최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각국의 derisking 움직임이나 대중국 유화정책의 병행은 중국발 위험 요인은 완화하되, 중국과 냉전의 위험성+군사적·경제적 충돌 상황은 관리해야 한다는 합리적 판단을 담고 있음

-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대중 정책 차이 주목.
- 미국내 양극화된 국내정치 상황과 다양한 대중정책의 추이 주목.
-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가능한 방안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인식.
- 통상국가로서 한국은 장차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할 Global South, 서구 경제권보다 더 커질 BRICS 경제권에 대한 접근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중-러 관계를 관리해야 함.

우려할 것은 주변 각국에서 강경론이 확산 추세라는 점임. 세계는 불안정하고 군사적 충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러시아의 대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 강화. 우-러 전쟁으로 이미 미국과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인식.
- 미국의 가치 중심의 외교 추진에 대한 중-러-이란-Global South의 연대 강화와 대서방 포위 추진(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아프리카 곡물 지원).
- 미국 내 2024년 상원 및 대선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 강화. 트럼프의 재등장과 미국 내 강경파의 득세.
※ 미국 내 대중 정책은 크게 '전략적 협력과 관여파', '전략적 경쟁파', '경쟁적 공존파', '냉전적 대립파'로 분류 가능. 바이든 정부시기 전략적 경쟁파가 주도하다 경쟁적 공존파에 힘이 실리는 양상임. 다만, 공화당이 집권하면 냉전적 대립파가 주류 세력이 될 개연성 다대.
- 중국 내 최근 친강 외교부장,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 등의 낙마관련 중국 내 온건파 세력의 극단적으로 약화될 상황이 우려되고, 강경파가 득세할 것으로 전망.
- 니제르의 쿠데타는 서방의 희소자원 및 에너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양진영 사이에 國際戰化할 개연성.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의 에너지 안보 시장에서의 우위 대폭 강화.

한미동맹의 외연 확대는 대만 문제 등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연루될 개연성도 그만큼 증대되어 한중 간 군사적 충돌 개연성이 커짐

- 중러가 연대하여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은 반드시 억제하여야 함.
 - » 러시아는 유럽 전선에서 미국의 개입 역량을 약화하기 위해, 미중간 소모전을 위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지지할 수 있음 (마치 6.25때와 유사한 상황)
 - » 대만 분쟁 발생시, 주한미군과 일본을 한반도에 묶어두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지지할 수 있음

한미동맹의 외연 확대는 대만 문제 등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연루될 개연성도 그만큼 증대되어 한중 간 군사적 충돌 개연성이 커짐. 중러가 연대하여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상황은 반드시 억제하여야 함.

발행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홍규

편집인 서대욱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울곡관 527-2호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ucpi.ajou.ac.kr>

US-China Watching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